

내년 광주교육감 선거 '후보 양보' 진실공방

장휘국 "요구한 적 없다" 정희곤·윤봉근 "중용당했다"

모두 전교조 출신...市선관위,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조사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전교조 출신 후보 3명이 '후보 양보' 발언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의원과 윤봉근 의원이 장휘국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각각 '후보 양보'를 중용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장 교육감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선관위가 이들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후

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교육청 간부가 직접 '후보 양보'를 권유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8일 '교육감선거 후보 양보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시인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

며 "선관위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희곤 의원은 "추석 전인 지난달 13일 저녁식사를 겸해 2시간여 동안 장 교육감과 식사를 했다"며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 핵심은 양보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봉근 의원은 "양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같다"며 "사실이 뻔한데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희곤 의원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

나 "추석 전 장 교육감과 독대한 자리에서 그로부터 직접 후보를 양보해줄 것을 요구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윤봉근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두 차례 장 교육감 측근들이 찾아와 양보 의견을 제시했고, 양보가 안 될 때는 지역 원로들의 도움으로 현 교육감을 재추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정 의원과 윤 의원의 '후보 양보' 폭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장휘국 현 교육감 재추대를 차단하기 위해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뽕어서는 책으로 집을 채우고 늪이면 나무와 화초로 뜰을 채우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정원을 보라는 말도 없었다. 나 역시 늪마에 생 오지로 들어온 후 널따란 뜰에 이것저것 재배 많은 나무를 심었다. 가까이에는 소쇄원에 자주 들르게 되면서부터는 정원에 관심도 많아졌다.

그런데도 순천세계정원박람회 구경은 선뜻 내키지 않아 지금까지 미뤄왔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것이 싫었고, 급조된 정원은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미투고 미투다가 폐막을 10여 일 앞둔 지난 주에 순천에 갔다.

정원박람회장에 들어선 나는 먼저 구름 같은 인파와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랐다. 평일인데도 4만여 명이 몰려왔다. 관람객이 많은 것은 홍보효과도 크지만 오늘날 힐링과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

것은 광역적 개념의 생태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새로운 공원문화를 엮을 수는 있었지만, 어쩔지 극적 불명의 널따란 공원에 온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정원이 갖고 있는 고요함과 평화로운 휴식공간, 아름다운 수목의 너그러움, 문화와 생태의 교감이 아쉬웠다.

새와 물소리가 자아내는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관람객 동원은 성공했지만 내용은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순천이 이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도 발돋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관리를 잘한다면 시간의 축적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15세기 르네상스와 함께 조성된 이태리 피렌체 일원의 빌라 정원, 프랑스 베르사이유 정원, 빈의 쾨부르크 정원, 맨해튼의 남펜트론 정원, 담양의 소쇄원 등은 오랜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명품

순천정원과 소쇄원

박람회장 안은 가을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600종에 1억 송이 국화로 지구촌 생태환경을 표현, 온통 황금색 국화향으로 가득했다. 111만 제곱미터에 1064억 원을 들여, 생태박람회를 주제로 마련한 정원박람회에는 순천시민들의 열정과 자존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먼저, 한국정원을 둘러보고 품의 다리를 건너 세계관과 주제관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자연이 일구고 사람이 가꾼 생명의 공간"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를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재현했다는 한국전통정원은 돌 대신 시멘트 계단이며, 국적불명의 조형물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빚어낸 우리네 전통 정원이 자연을 끌어들이 휴식과 위안의 공간이었던 것에 비해, 어딘가 허술하여 급조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세계공원 역시 별 감흥을 주지 못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가가 설계한 순천호수공원과 영국 찰스 플라잉이 설계한 '해우소'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지해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원시적인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3시간 동안 구경을 마치고 나서 느낀

이다. 무엇보다 정원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동천과 순천호, 5킬로미터 떨어진 순천만 습지와 연계하여 순천만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 생태정원을 벨트화한다면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순천시민들의 열정과 자존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돌아오면서 소쇄원과 소록도병원 정원을 생각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러가든 소록도로 가고, 역사와 울긋불긋한 순천정원이 오롯이 깃들여 있는 살아있는 별서정원을 보러가든 소쇄원으로 가 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스승인 조공조가 사약을 받아 세상과 담을 쌓고 이상세계와 도학사상을 꿈꾸며 소쇄원을 일군 양산보. 그는 계곡물과 바위와 숲을 마당 안으로 끌어들이고, 대봉대에 앉아 봉황을 기다렸다. 그는 스승이 꿈꾸었던, 도의 정치가 바로 세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 것이었다.

호남 사립 담원의 장소였고 창작공간이었던 소쇄원에서, 하서 김인후는 소쇄원 48영을 비롯한 180편의 시를 썼다. 순천정원박람회 공사비 1064억 원으로 소쇄원에 쌓인 500년 역사와 문화를 살 수 있을까.

<소설가>



아베의 두얼굴?

8일 오전 발리 소피텔호텔 정상회담 테라스에서 열린 기념촬영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잠시 생각에 잠긴 뒤(왼쪽)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실험"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공언"

북한이 지난 8일 5MW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수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년 내에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으며, 북한군은 최근 수도권을 겨냥한 포병 화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동향을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또 해군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는 지역과 백령도 연안에 화력이 강화된 240mm 방사포와 122mm 방사포를 각각 배치하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남 원장은 보고했다.

남 원장은 일부 외신이 앞서 보도한 은하수 관측단 단원 10여명 총살설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총살이 이 악단 출신인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추문설과 관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파일 공개 여부와 관련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음원파일은 USB(이동식저장소)로 저장 보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국회 정보위 제출 시기에 대해 남 원장은 "10월 중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 정보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이적단체 및 간첩적발 등에서 국내외 활동 통합 ▲대공 수사 파트 대폭 보강 등의 원칙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노벨 물리학상 영·벨기에 앙글레르

우주 탄생의 열쇠 역할을 한 '힉스 입자'의 존재를 49년 전에 예견한 팔순의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1964년 힉스 입자의 존재를 각각 예견한 공로를 인정해 벨기에의 프랑수아 앙글레르(80) 브뤼셀 자유대 명예교수와 영국의 피터 힉스(84) 에든버러대 명예교수를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흔히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는 수십년 동안 '가설'로만 존재해 오



영국의 힉스(오른쪽)와 벨기에의 앙글레르.

해 들어 국제 연구진에 의해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연합뉴스

"F1 4월 개최 행정공백 우려"

이정민 도의원 주장

전남도의회 이정민 의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F1 4월 개최는 6월 지방선거 전 임기를 마치고 전에 대비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6개월 만에 두 번의 대회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지자체와 기업체를 티격 거침으로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도민의 우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을 버리고 남은 도정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정보통신연구원)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시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 계곡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